September 27, 2017
XVII - 6

한국외교협회
Kor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外交小考

문화충돌론에 기초한 현 국내외 상황인식



황 용 식

최근 국제적으로 냉전이후 국제질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미국이 대외개입을 줄이고 미국고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데 비하여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부상하면서 미국과 패권을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어떻게 발전하느냐가 세계역사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반도 내에서는 경제적으로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북한이 인류역사상 가장 가공할 무기를 개발하고 미국에 무력으로 대항하겠다고 하는데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러한 도전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하여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어서 북한의 이러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하여 미국의 사드(THAAD)를 한국 내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강한 압력을 행사하여 한국 상품의 중국 수출과 중국인의 한국관광이 급감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중국에 진출하였던 한국 기업이 중국을 탈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에 관하여 여론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사드배치에도 반대한다는 계층이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립, 한국내의 갈등 등을 이해하는데 이러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문화충돌(clash of culture)적 측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말 무렵 하버드 대학교의 사무엘 헌팅턴 교수는 문명충돌(clash of civilization)론을 제시하면서 세계를 종교를 중심으로 8개의 문명권으로 나누고 이들 문명권 간에 단층선(fault

lines)이 생겨 상호 충돌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갈등을 야기하는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상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현 국내외 정세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문명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보다 갈등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문화적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 같다.

미국과 중국 간에 문화적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은 미국과 중국이 동일하게 자기들의 전통문화가 상대방 문화를 압도할 만큼 우월하다는 인식이다.
미국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서구의 문화를 이어받은 것이다. 서구 문화는 원래 로마문화를 바탕으로 로마통치지역으로 이동한 게르만 족들이 중심이 되어 로마를 지배하였던 라틴 족과의 공존을 모색하면서 로마문화와 기독교사상을 흡수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여 왔다. 이들 게르만 족들의 주류는 중부 유럽에 프랑크 왕국을 건설하였으나 나중에 이 왕국을 3분하여 통치한 것이 오늘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이다. 또한 이 지역외의 서구 각 지역에서 이주민족과 토착민족이 서로 섞여 독자적인 국가를 형성하여 상호보완하고 경쟁하면서 종교개혁, 과학혁명, 산업혁명, 시민혁명 등의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여 19세기 중엽 세계질서를 창조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였다.

미국은 자신들이 이러한 서구문화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종족에 대한 문을 개방하여 서구보다 더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수립에 주역으로 부상하였는데 20세기에 일어난 양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서구에 대신하여 개인의 존엄성 인정과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전 세계에 보급시킨 가장 훌륭한 문화라고 생각한다.

이에 비하여 중국은 농경생활을 한 한족(漢族)중심으로 고대로부터 우주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중국대륙의 문화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으며 서양이 19세기에 와서 부당하게 무력으로 중국을 침탈하여 그들의 중국의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켜 놓았다고 인식한다.
중국문화는 한족중심의 문화이며 다양성보다 통일성을 추구하여 한족들은 주변의 이민족을 흡수하여 동화시켜 나오면서 서구보다도 인구와 면적을 확장시켜 나왔다. 중국대륙은 우랄산맥 이서(以西)의 서구대륙에 비하여 면적은 약 2배이고 인구는 약 1.5배이다. 중국대륙에는 통치권자가 주변나라들을 통합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경향으로 서구대륙에는 약 50개의 독립국가가 존재하는데 비하여 중국대륙에는 단 하나의 나라가 존재한다.

중국에는 한족 이외에 55개 소수민족이 존재하나 소수민족은 우리의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를 합친 개념과 유사한 신분과 거주지를 나타내도록 되어있는 후커우(戶口)에 소수민족임을 기재하게 하여 국가가 이들을 제도적으로 관리한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주변을 병합하고 통일을 지향하여 왔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서구문화와 중국문화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의 차이로 인하여 인간관계의 본질을 파악하는 방법과 통치의 기본원리를 달리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서구문화는 로마시대부터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는 다원적 사회를 구성하고 서로 다른 민족간에 상업활동을 하면서 개인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국가의 권력이 개인 간의 관계에 개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때는 개인들이 이에 반항하여 왔다.

중국 문화는 오랫동안 농경사회를 유지하면서 토지에 정착되는 집단에서의 질서유지를 가장 중요시하여 개인은 집단의 일부로 파악되고 통치자는 하늘의 뜻에 의하여 선정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통치자의 권위에 절대복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여왔다. 중국대륙에서 많은 왕조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한 변화는 대립하는 세력들 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통일 지향적 투쟁에 의한 것이거나 주로 하층민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을 만큼 폭정에 시달리어 폭동을 일으킨데 기인하거나 한족과 이민족들 간에 투쟁에 의한 것이었을 뿐 국민들의 일반의지가 반영되어 권력교체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었다.

서구와 중국의 이러한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서구사회는 수평적 인간관계가 중요시되고 개인이 소속집단으로 무분별하게 희생을 당하지 않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 권익을 법규범으로 보장하는 사회를 지향하는데 비하여 중국문화는 개인이익보다 소속 집단의 전체이익이 강조되고 개인의 자유, 권리보다 집단 지도자 개인의 영도력과 집단 소속원 간의 조화가 더 중요시되는 사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서구와 중국문화의 이러한 차이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서구문화가 국가 경쟁력측면에서 중국문화를 압도하게 되어 일어난 것이 1830년대 말의 아편전쟁이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중국의 국가경쟁력이 서구문화를 당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에 인식되자 과거 중국문화의 영향권 하에 있던 일본이 중국문화의 영향을 벗어나 서구문화를 적극 수용하여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일본은 서구열강의 제국주의 흉내를 내어 군국주의로 나아가 중국을 침략하는데 참여하고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던 한반도를 일본의 영향력 하에 두게 되었다.

중국은 서구열강의 침입을 받은 이후 서구의 반식민지로 전락하였다가 20세기 초 공산주의를 수용하고 독재체제를 유지하다가 1970년대 말 개혁과 개방을 단행하고 서구에서 발달한 자본주의를 수용하여 외형상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중국은 그러나 정치적으로 전통문화에 바탕을 둔 최고통치자의 절대 권력행사를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가지지 않은 채 공산당 조직을 통한 일당 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으로 인한 중국의 대외적 위상의 향상을 발판으로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는데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설치하는데 대하여 한국에 전 방위 압박을 가하는 것은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사업으로 고구려, 발해를 중국의 역사로 기술하고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나 과거역사에서 한반도가 중국의 것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볼 때 중국이 구상하는 새로운 세계질서에서는 한반도를 중국의 세력권내에 두려는 의도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는 군국주의 일본의 영향력 하에서 36년을 지나면서 서구문화를 일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서구문화를 수용하는 측은 일부 지식층에 국한되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서구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해방되었으나 해방 후 남·북한이 갈라지면서 남한은 미국의 영향권 하에서 서구 문화를 수용하게 되었으나 북한은 스탈린의 독재체제 하에 있던 소련의 영향을 받아 서구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

남·북한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됨에 따라 한국은 서구문화를 수용한 제도를 정착시키고 대외개방을 통하여 20세기 후반부터 세계와의 경제교류를 통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자유민주주의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전통문화가 존속하였던 기간에 비하여 서구문화를 수용한 역사가 매우 짧고 한국의 발전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과 빈부격차의 차이에 대하여 반발하는 세력이 서구문화에 기초한 가치관보다 민족주의에 기반한 전통적 가치관을 더 중요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사회에서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시하는 가치관과 집단소속원 간의 평등을 더 중요시하는 계층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으로 상호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면서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북한은 통치자의 절대권력 행사가 당연시되던 과거의 통치체제를 대를 이어 유지하면서 폐쇄된 경제체제를 벗어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에서 낙후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북한의 통치자는 체제유지에 위협을 느끼게 되고 체제유지 수단으로 강력한 무기개발에 전념하여 현재 세계의 최빈국의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여 체제유지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나라에 대하여 무력을 과시하고 있다.

북한이 가공할 무기를 개발하여 한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는 우리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문화적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가 앞으로 택하는 가치관이 우리장래의 생존문제와 관련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 황용식 대사(yshwang4528@naver.com)는 주튀니지 대사, 주타이베이대표부 대표 등을 역임하였다. (위는 필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혀둠.)

한국외교협회
Kor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94길 33 (우: 06759)
☏ 02-585-6475 Fax. 02-585-6204
www.kcfr.or.kr editorial@kcfr.or.kr